**분당 대학지구 10캠퍼스 이레 킨다봉**

Q.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요?

저희 친할아버지 분미 목사님께서는 북쪽지방 루앙프라방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3번이나 붙잡혀 가셨고, 옥중 생활을 하시면서 지병을 얻으셔서 신장 결석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저의 작은아버지가 목회를 이어하고 계십니다.

큰 아들인 제 아버지는 청년시절, 교회도 없는 남쪽 타켁지역으로 내려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008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메리’라는 선생님을 통해 다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엄마와 6남매에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동안 저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엄마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매일 눈물로 보내시던 어머니의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후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깊은 감격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나며 사랑의 예수님이 항상 제 옆에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매우 기뻤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 4남 2녀를 키우던 중 매리 선생님을 통해 저는 2011년 3월말에 수도로 와서 이수정 선교사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 어머니는 타켁 동쿠왕에서 가정교회를 열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하여 2017. 10. 24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수도에 올라와 한국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며 영어로 공부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제 저는 나의 조국 라오스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저에게 예수님이란?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주인이시자 생명이며, 저의 친구, 저의 모든 것 입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에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차량 사고가 날 뻔 한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크게 다쳤을 겁니다. 자전거 사고 뿐 만 아니라 엄마와 함께 고향을 내려 갈 때도 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함께 지낼 친구도 없고 기숙사 룸메이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도와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때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어서 라오스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속에 어찌해야 할 지 모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 했습니다. 그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 날 때 마다 외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사회복지학과 선배였는데, 좋은 과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이였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Q. 저에게 교회란?

저에게 교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매개체 입니다.

제가 한국에 유학을 온 뒤 외롭고 두려운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를 통해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늘 공급받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셨고 가족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목장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번 2학기에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기숙사 합격 발표하는 날에 기숙사 사무실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레 킨다봉 이름이 없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1주 후 학교 곧 개강을 하는데 제가 어디에 가야 하나요?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개강 3일전 같이 훈련을 받았던 친구가 좋은 언니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언니는 “이레가 괜찮으면 같이 살아도 좋아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어니의 그 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현재 언니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언니에게도 고마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대학부 목사님, 전도사님, 언니, 오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바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공부가 너무 부담되어서 걱정되는 것이 많았고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보게되었고,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고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삶은 꽝! 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